

제 목	국 문 폐결핵 환자의 치료순응 관련 요인 영 문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with Anti-Tuberculosis Therap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천태, 강복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Cheon Tae Kim, Pock Soo K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 천 태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1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결핵관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받고 있는 초치료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순응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성공적인 결핵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통합형 보건소(대구시 달성군, 경주시, 구미시)에 1995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치료중인 환자중 9월 31일 현재 치료 시작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초치료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각 환자들의 결핵치료 양상을 파악하고 치료 순응도를 측정한다. 둘째,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치료 순응도를 높여 성공적인 결핵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은 도농통합형 보건소(대구시 달성군, 경주시, 구미시)에 1995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월 15일 현재 치료 시작후 3개월이상 경과된 초치료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114명(대구시 달성군 : 35명, 경주시 : 42명, 구미시 : 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계속적인 추적관찰에서 누락된 10명을 제외하고 104명(조사율 91.2%)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은 각 보건소의 결핵관리요원이 가정방문이나 보건소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조사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우사전에 고안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순응과 비순응을 판단하기 위하여 치료 경과의 양상이외에, 환자의 투약습관, 보건소 방문 약속의 이행 정도 등을 추가하여 4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3. 결과

연구대상자 104명중 순응군은 72.7%였고, 비순응군은 27.3%였다. 치료시작후 흡연 습관, 음주 습관, 운동 습관, 일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었으나 순응군과 비순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결핵약과 같이 먹고 있는 약이나 음식은 개고기와 비타민이 많았고 순응군과 비순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핵을 진단받을 당시 느꼈던 증상은 기침과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많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결핵 치료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순응군과 비순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의 지지도는 순응군과 비순응군에서 같았고, 지지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Cronbach's α : 0.859, Standardized α : 0.863) 신뢰성이 있었다. 결핵에 대한 지식도는 순응군이 비순응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지식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Cronbach's α : 0.597, Standardized α : 0.672) 신뢰성이 있었다. 순응군과 비순응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에서는 결핵약을 다음 보건소 방문일까지 먹기에 꼭 맞는 경우($p<0.01$),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p<0.05$), 한 번에 먹는 결핵약의 양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경우($p<0.05$) 등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4. 고찰

이상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순응군과 비순응군의 분류에 대한 좀더 다양적인 연구 및 접근과 순응군과 비순응군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을 통해 얻은 결과로 전체 초치료 폐결핵 환자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